



제목	이슬람의 보물 : 알사바 왕실 컬렉션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발행일	2013. 6. 28.
저자	국립중앙박물관
출판도시	파주
페이지수	290
ISBN 또는 ISSN	978-8993518276

내용 요약

이 책은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세계문명전 시리즈의 하나로 이슬람의 미술을 조명하는 <이슬람의 보물-알사바 왕실 컬렉션>의 도록으로서 이슬람 미술의 역사적 흐름과 이슬람 미술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글을 담고 있다. 이슬람 미술의 역사적 흐름은 8~10세기 이슬람 미술의 기원, 11~13세기 이슬람 미술의 다양한 전통, 14~15세기 이슬람 미술의 성숙기, 16~18세기 이슬람 미술의 전성기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이슬람 예술의 본질적 특징으로는 예술로 승화된 문자인 서예, 무한한 반복의 표현 기하학 무늬, 식물무늬의 장식화 아라베스크, 이슬람 미술의 형상 표현, 화려한 궁정 문화 보석공예에 대해 전시 예술품과 함께 배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슬람 미술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의 믿음을 위해 만든 종교 미술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쪽의 스페인에서부터 동쪽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이슬람의 땅에서 생활하였던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미술품을 포괄하고 있다. 수 세기 동안 여러 대륙의 역사를 품으며 탄생한 이슬람의 미술품들은 이슬람 문명이 거대한 문화의 융광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전시에서는 이슬람 초기 양파지에 쓴 쿠란 필사본을 비롯하여 페르시아 정원을 연상시키는 카펫, 무굴제국의 화려한 보석 등 367점의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